

Empire in Asia: A New Global History

Volume One

From Chinggisid to Qing

Edited by Jack Fairey and Brian P. Farrell,

BLOOMSBURY ACADEMIC, London, 2018

요약본

2021년 4월 27일

Series Introduction: “Reordering an Imperial Modern Asia”

Jack Fairey and Brian P. Farrell

- 오늘날 “제국”은 오욕의 단어: 타국을 비난할 때 사용
- 그러나 최근까지 아시아 지역사에 핵심적 역할
 - ▶ 제국이 근대 아시아를 규정하고 더 넓은 세계와 지역을 연결
- Q: 아시아 제국에 “아시아적” 특수성이 존재하는가?
 - 그리스 이래 유럽정치사상에서의 반복된 모티브
 - ▶ 유럽의 자유애호 민족들 vs 아시아의 노예대중
 - ▶ 동양적 전제정(계몽주의), 아시아적 생산양식(맑스), 술탄주의/가산제(베버)
 - 현대 제국논의는 대부분 서구제국사에 기반: 아시아는 희생자 위치화
 - ▶ 사실 역사상 거대제국의 대다수는 아시아에 위치
 - ▶ 19-20세기서구가 우세했던 짧은 시기 때문에 패러다임 전도: 마치 제국이 서구만의 현상인 듯 논의
- 본 시리즈는 아시아의 제국경험에 대해 질문: 제국& 아시아의 관계 재고찰
- 3가지 핵심질문
 - (1) 제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질서를 구성?
 - (2) 아시아의 경험을 규정하는 제국 개념, 실천, 이해?
 - (3) 아시아와 외부세계가 어떻게 연계, 어떤 결과야기?
- 시리즈 구성
- 1권: 제국이 어떻게 유라시아를 조형?

2권: 제국이 어떻게 “GlobalAsia”를 형성?

Concepts and Historiography

- 본 시리즈는 아시아의 거버넌스 형태로서 제국의 비교사 추구
 - ▶ 전제: 근대 아시아사 형성에 제국이 결정적 역할: 제국사 이해 = 근대아시아 이해
 - ▶ 거시 구조/프로세스 이해를 위해 정치적 경계들을 넘어서는 비교필요
 - ▶ 그간 아시아 비교제국사 연구의 빈곤: 기성 제국사 연구는 유럽제국사레 치중

- 최근 제국사 연구의 신경향
 - ▶ 제국간, 지역간 비교연구, 제국을 조우/연결/흐름/운동으로 파악
 - ▶ 지적 기원: 맥닐의 “세계사”,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론”

- 본 시리즈는 최근 비교제국사의 성과를 종합해 아시아 제국사 연구를 재고

Definitions

- “제국” 개념의 정의 문제: 정치학, 역사학자들간 합의 결여
 - ▶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사용한 개념들간 통약 불가능성: 天下? Padashhi(페르시아)? Samrajya(산스크리트)?
 - ▶ 과연 로마/유럽중세에 기원한 “empire” 개념을 비유럽정체에 적용가능?

- 본서에서의 작업 정의: 3가지 구성요소
 - (1) 이데올로기: 보편주의. 보편적 통치에 대한 기대. 팽창/통합=좋은 것, 세계질서에 대한 위계적 비전.
 - (2) 구조: composite polities & 불평등편입
 - (3) 제도: 다층위적. 매개세력들을 통한 간접지배

Q: 왜 근대 아시아에 제국이 그토록 일반적?

- 제국 관념의 성공적 전파: 성공한 제국들의 모방/계승
- 제국정체의 다양성/복합성: 유능한 통치 레퍼토리 개발(다성적 시그널링) -> 검증된 제도 및 관행 구성 -> 계승/모방
- 거버넌스 형태로서 제국은 유능성이 증명: 대규모통치에 유연성 발휘, 값싸게 효율적으로 대규모의 다양한 단위들에서 자원 추출

Q: “아시아”란 정의 문제: 역사적으로 아시아는 의미있는 단위/연구대상 X

- 아시아 제국의 경험에 “아시아적 특색”X: 동양전제정, 아시아적 생산양식 개념 등은 근거X
- 아시아는 “유라시아”라는 맥락 속에서 연구필요: 제국사에서 동과 서는 상호교류
- 아시아는 그 자체로서 완결적 범주X: 유라시아의 통합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에 무시된 아시아제국사 탐구 필요
- 아시아 제국사 연구를 연구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함

Revisiting Empire in Asia

- 제국사 & 지구화 역사의 연관성
 - (1) 제국 = 지구화 과정의 근본적 추동자: 거대지역 통합, 팽창과 편입
 - (2) 제국들의 팽창과정에서 상호간 조정의 경험: 근대“국제”질서개념은 국민국가들이 아닌 제국들 간에 먼저 형성
 - (3) 제국 거버넌스 자체가 지구화에 의해 재조형: 제국들은 모방, 동화과정을 통해 상호간 유사성 증대
- 제국사 = 지구사의 핵심적 구성요소

Vol.1 Introduction: “Making Imperial Asia”

Jack Fairey and Brian P. Farrell

- 1권의 범위: 몽골~ 19세기유럽산업제국주의 도래
 - ▶ “원형지구화 시대”로서 “초기 근대”시기와 겹침
- 목표: 제국 팽창 & 제국간 접촉/교섭의 증대, 아시아내제국형태들에 대한 개관
- 몽골제국에서 시작하는 의미
 - ▶ 유라시아의 단일 “세계질서” 창조: 몽고의 위협이 기성질서들에 충격
 - ▶ 칭기즈 시대가 근대 “제국 아시아”의 기초 형성
- 칸국들의 해체가 낳은 3가지 트렌드
 - (1) 지역의 작은 국가들이 서로 제국건설경쟁
 - (2) 16-8세기5대제국건설: 아시아에서 신제국 황금기
 - ▶ 4대 영역: 중화, 터키-페르시아, 정교슬라브, 동남아
 - (3) 유럽제국의 도래: 아시아 공간에 자신들의 제국 프로젝트 추구
- 새로운 제국들의 블록들: 복수의 경쟁하는 지역화된 세계질서 대변
- 유라시아 제국들의 특징5
 - (1) 군주제가 보편적: 인간사회의 위계적 질서화에 대한 믿음, 황제 = ‘왕중왕’이라는 관념의 보편성
 - (2) 칭기즈 통치에 대한 공유된 경험: 전세계의 제국적 통일에 대한 모델제시
 - (3) 무역을 통한 번영과 힘의 추구 ⇨예외사례로서明清(워낙강대해 외부무시가능)
 - (4) 문화적 통합자로서 종교: 이슬람이 특히 중요, 선교행위가상이한 제국/문화세계간 가교역할, 통치자들에게 공통의 정치단어/이상 제공
 - (5) 유라시아 지역간 연계에서 바다의 역할: 대항해시대와 겹침
 - ▶ 15-16세기아시아 여러 제국들이 해양탐험 개시: 明, 오스만의 예
 - ▶ 서유럽의 탐험 모티브가 인도와 중국에 축적된 부에 닿기 위함이었음을 상기

- 공식적인 유럽제국주의 부상 이전 이미 유럽인들은 “아시아제국” 스토리에 참여
 - ▶ 단 이시기 아시아 제국사에서 유럽의 역할은 제한적: 유럽인들이 더 크고 역동적인 세계에 접속한 형국
 - ▶ 유럽인들은 기성 지역의 네트워크/제국에 의존: 현지정체들이 더 강대하고 부유
 - ▶ 18세기말까지 서구인들은 지역정치질서를 변화시킬 입장X: 반대로 지역률에 적응하고 배워야할 처지. 지역통치자 눈밖에 나 추방된 사례 다수

- 이베리아인들의 업적: 이런 한계 속에 광역제국건설
 - ▶ 처음으로 진정한 지구경제 건설: 신세계의 은을 아시아의 상업에 접속
 - ▶ 거대 해양네트워크 구축: 나중에 영국, 화란, 불란서가 전유
 - ▶ 이베리아의 성공은 아시아국가들에게 바다 = 제국건설의 수단/목표라는 새로운 관념 전파

- 이후 비공식 제국건설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chartered company 부상
 - ▶ 동인도회사들은 근본적으로 합작투자회사: 유럽의 야심 & 아시아의 네트워크/자원의 융합
 - ▶ 18세기말-19세기초 유럽제국 프로젝트의 선구

Chapter1: “Inner Asia, 1100s~1405- The Making of Chinggisid Eurasia”

Florence Hodous

내륙 아시아의 유목 제국

이 장에서는 유목 생활과 내륙 아시아 정치 전통이 몽골제국의 거버넌스, 외관, 통치 스타일과 내륙 아시아 및 그 외 지역에서 몽골제국의 유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몽골 제국의 형성

테무진의 적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친구에 대한 관용을 통한 명성의 획득과 전체 몽골민의 리더십 추구, 그 결과 1206년 칭기스칸의 새로운 명칭 획득

1227년 칭기스칸의 사후 아들과 동생들이 분할 통치

1260~64년 Toluid Civil War의 결과 통일된 몽골제국의 종식과 4개의 독립적인 khan이 출현하여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서로 관계 형성

쿠빌라이에 의한 원제국(~1368년)

Ilkhanate(~1335): Hulegu(홀레구), 홀레구 울루스

첫째 아들 Jochi의 후손: Golden Horde(킵차크칸국, 주치 울루스)

둘째 아들 Cha'adai의 후손: Chagatai Khan(차가다이 울루스)

제국의 건설

약 백만의 인구를 가진 몽골이 어떻게 정복하고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는가?

공식구조와 제도보다는 테무진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가정과 개인적 충성관계에 의존하여 다양한 종족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몽골 이름을 부여받음으로써 '명예로운 몽골인'이 되었다. 직접적인 통제나 비인격적 관료 구조 없이 제국을 하나로 뭉치게 한 것은 이러한 개인적 충성이었다. 칭기스칸과 긴밀했던 개인과 전체 공동체는 권력과 칭기스칸과 일정 정도 파트너십을 공유할 수 있었다.

몽골 제국의 여성들도 제국을 함께 유지하고 기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나라의 친척과 결혼한 제국 가족의 여성들은 충성과 신로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부마는 군대 내 리더십 지위가 주어졌다.

Khan의 주된 관심은 통일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피하고 잠재적 갈등을 해결하는 개인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몽골이 새로 정복한 지역에 인구조사를 제출하고 세금을 부과하였지만 복속한 지역의 통치자와 정부에 자신의 방식대로 행정적 세부사항을 다루도록 맡겼다. 제국 가족 구성원의 속령은 세금, 군대, 충성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반독립적(semi-independent)이었다.

몽골은 모든 지역의 종교지도자와 신앙공동체를 '관용' 때문이 아니라 샤머니즘에 기반한 몽골의 세계관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존경심으로 다루었다. 성직자에게는 khan을 위해 기도하는데 동의하면 세금을 면제해주었다. 종교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자치 공동체로 다루어졌다.

법률 관점에서 볼 때 몽골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단일 법률체계를 부과하려 하지는 않았다. 보통 백성들을 위한 법률 체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관습에도 불구하고 몽골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속국 통치자와 몽골의 정부 관료, 즉 개인적으로 khan에게 충성을 서약한 모든 사람들 등 하나의 계급이 있었다.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제국 캠프(imperial camp), 혹은 몽골 왕자의 회합의 맥락에서 신분이 상급자 앞에 출두하도록 요구되었다.

훌륭한 지도자는 강한 전사, 단호한 리더, 카리스마적 개성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추종자에게 극도로 관대하고 추종자들에게 백성, 명예, 토지를 보상으로 주도록 기대되었다.

몽골 지배에 대한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동일한 임무를 감독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관료를 임명하는 관례에 반영되었다. khan은 효율성을 희생하는 대신 감관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라이벌의 남용이나 비규율성을 즉각 보고함에 따라 통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제국적 정체성(imperial Identity)

몽골비사(*Secret History*)와 같은 초기 몽골 문헌의 증거에 기반해볼 때 몽골인들은 초기에 외국의 정치체를 근본적으로 자신의 정치체와 다르다고 보지는 않았다. 외국의 정치체를 몽골의 준거틀에 따라 해석하려 했다. 정치체를 추상적 독립체로 인식하기보다 통치자, 통치자의 혈통, 이들에게 복속된 백성의 합성체로 인식하려는 뚜렷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용어의 하나가 'irgen'이라는 백성(people)였다. 몽골비사에서는 중국 북방의 거주민을 'Khitan people'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정치체에 대한 몽골어로 초기 단어는 *ulus*였다. *ulus*는 처음에 몽골 유목 생활 양식과 인구가 적은 스텝지역에서 추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상대적 어려움을 유지하기 위해 복속 백성의 집단으로 언급되었다. 몽골이 이웃 정치체제에 대한 통제를 확대해감에 따라 그러한 용어는 khan에 의해 제국 엘리트의 구성원에게 주어진 속령의 의미와 함께 보다 영토적 함의를 획득하게 되었다. 1206년에 칭기스칸이 자신의 지배영역을 제국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1211년 그의 명목적 지배자였던 Jin 왕조와 대치하는 동안 칭기스칸은 처음으로 명백하게 제

국적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칭기스칸은 수많은 Jin 탈주자를 환영했고 작곡가들은 몽골이 중국으로부터 '제국'의 아이디어를 차용하도록 요구했다. 예를 들어 천자, 칭기스칸은 'Mongqol Ulus'에 '대'(great)라는 형용사를 접두사로 붙임으로써 제국적 함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제국적 정체성을 건설하려는 추가적인 조치는 칭기스칸 사후에 이루어졌다. 칭기스칸의 셋째 아들이며 승계자인 우구데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khans 중의 khan을 의미하는 khaghan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타이틀은 몽골 세계제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다른 지도자와 차별화하려는 필요에서 채택되었다. 우구데이는 중앙 몽골의 오르곤 계곡에 있는 Qaraqiorum에 왕궁을 건립하고 영원한 수도로 전환하였다.

세계를 통치할 권한

스텝지역의 유목부족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관습이 나라간 관계에 대한 몽골의 관념을 형성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다른 정치체와의 관계에서 초기 칭기스칸 국가의 최우선적 고려는 제국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수많은 적에 대항한 칭기스칸의 개인적 명예였다. 몽골 지도자에게 자신과 가족, 부족에 항거하는 공격에 대한 복수는 의무였다. 'vengeance system'는 명예를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몽골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보상으로 귀결되었다.

특별한 분쟁이 없으면 칭기스칸은 다른 정치체와 가급적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하였다. 명예와 복수의 문제가 몽골사 전체를 통하여 중요하였지만 몽골 khan이 세계에 대한 주권을 부여한 천명을 소유하였다는 관념이 점차 뿌리내리게 되었다. 보편적 권위에 대한 요구는 몽골 전통 종교에 근원을 둔 것으로 여겨졌다. 내외부적 소용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몽골이 특별한 천명을 소유했다는 관념이 다양한 목적에 기여했다. 새로운 몽골의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수단(항복의 요구, 몽골법정에 속령 통치자의 소환 등)에 의해 복속민과 이웃과 소통되었다.

그런데 몽골제국의 관념은 복수라는 제국 이전의 아이디어와 결합될 때 암울한 결과를 낳았다. 시민들에 대한 대학살이 신성한 권위에 반항하는 사람을 벌하는 응징의 신호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정복 이데올로기가 절정에 달했던 13세기말, 14세기 초 바깥 세력과의 몽골의 관계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몽골의 지배에 항복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항복하도록 몽골의 군대를 기다리는 존재였다. 위압적인 명령과 일방주의가 14세기까지 다른 세력과의 관계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정복할 계획을 세우지 않은 원거리 통치자에게는 다소 화해적인 어조를 취하였다. 칭기스칸의 승계자 사이의 균열이 열리면서 원거리 세력에 대한 접근이 보다 많아지고 중요해졌다. 골의 통치자들은 세계를 정복한다는 구상의 실행가능성이 낮아진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러한 구상에 젖어 있었고 '일 칸국'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야 국제지위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인지하였다.

몽골제국의 유산

다른 혈통과 비교하여 칭기스칸 후손이 우위라는 원칙은 시간에 걸쳐 확립되었다.

통일성을 기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복종에 대한 서약과 왕좌를 차지하려는 다른 혈육들의 시도, 우구데이 사후 승계를 둘러싼 아들과 삼촌의 갈등 등 왕좌의 계승을 둘러싼 긴장이 칭기스칸의 아들 우구데이의 가한(qa'an)의 즉위에서 보였다.

칭기스칸 형제들의 후손으로부터의 마지막 위협은 Qublilai Qa'an에 대한 1287년 Nayan의 반란이었다. 1287년 이후 몽골 세계에서의 정치적 정당성은 칭기스칸의 직계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원칙이 내륙 아시아 통치자들에게 수세기 동안 확립되었다.

몽골정복의 여파는 왕조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지하도록 만들었다. 칭기스칸 왕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일련의 법, Yasa의 관념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매우 중요해졌다.

또 다른 몽골제국의 유산은 여러 민족들의 몽골 군대 편입, 관리로의 임명, 재배치 등 몽골 제국 형성기 새로운 주민들이 출현, 정복된 주민을 가축(움직이는 재산)으로 보는 경향에서 보듯이 유라시아 인종 지도에 대한 전례 없는 영향이었다.

khans들은 특히 제국을 팽창하고 발전하는데 유용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재정 착하도록 하는 인구 이동정책을 취하였다. 제국의 건설의 위해 군사적 기술자와 기능보유자보다 도시의 법과 관습에 유능한 지방 엘리트 전문가 등 행정적·재정적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였다.

또 다른 장기적인 효과를 가진 정책은 자신에게 향복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칭기스칸이 자신의 군사작전에 싸울 군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구는 새로운 복속민의 충성에 대한 시험이었고 몽골 팽창의 모멘텀의 유지였다.

제국 팽창의 실제 과정이 일반적으로 유혈적이고 파괴적이었지만 몽골 통치는 일단 확립되면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제국은 광범위한 우편체계 확립, 안전한 교통로 제공을 통한 장거리 교환의 발달 장려 등 유라시아에 걸친 여행과 소통을 촉진시켰다. 몽골 통치 아래에서의 사람과 물자의 이동성은 종교, 법, 화폐정책, 농업, 의학, 역사 기술, 지리, 천문 등의 분야에서 독특한 문화적 기술적 교환의 시기를 만들어냈다.

몽골의 쇠락과 승계 국가들

몽골의 통치자들은 초기부터 거대한 제국을 구성하는 많은 이질적인 요소 위에 통일과 응집성을 기하는 과정에서 도전과 다양한 몽골 집단의 통합, 정복민들로부터의 복종의 확보, 칭기스칸 가문 내 분열적 경향의 통제 등 싸워왔다. 14세기 중반 이후 이러한 도전들을 통제하는데 사실상 실패하였다.

1335년 9대 Ilkhan이 후계자 없이 급사하였을 때 장군과 총독들이 사실상 독립을 선언하면서 영역이 급격하게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음모, 경쟁, 기근과 역병이 몽골 통치자들의 통치 역량을 잠식함에 따라 유사한 쇠퇴 과정이 다른 khan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들과 잠재적인 몽골 통치의 회복자들이 강력한 중앙통제의 상실에 의해 남겨진 공백을 신속하게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에서 이들은 칭기스칸적 정당성의 원천과 이슬람적 정당성의 원천을 모두 활용하고자 하였다. 상황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다.

Chaghatai Khanate도 각각 Western Khanate와 Eastern Khanate로 분리되면서 1340년대 분열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 Timur는 페르시아를 점령하였지만 많은 점에서 그의 군사작전은 칭기스칸과 닮았다. 칭기스칸의 유산, 페르시아를 정복한 사람이 흠결 없는 칭기스칸의 후손이라는 꼭두각시 khan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제약을 여전히 느꼈다. Timur는 자신의 제국을 아들들과 손자들이 분점하는 총독들로 분리함으로써 칭기스칸의 모델의 실수를 반복하였다. 예견된 결과는 그의 후손들 사이의 권력투쟁의 반복적인 형태였다. Timur와 Khan Toqtamish 사이의 1380년대~1390년대의 전쟁으로 Golden Horde의 힘이 고갈되었고 1440년대 중반 경쟁적인 계승국가들로 해체되었다. 몽골제국의 전통을 승계하는 마지막 승계국가들은 1440년대 중반 Jochi 가문의 모든 분파들 중에서 연장자를 요구하기 시작한 Shaybanids나 Uzbeks의 승계국가들이었다. 1500년도 초반까지 다수의 경쟁적인 소규모 khanates가 한때 칭기스칸 제국이었던 비대한 조직들을 대체하였다. 이들 각각의 khanates

는 칭기스칸 제국에서 기원을 찾으며 자신의 지배영역에서 소규모 형태로 그러한 제국을 재창조하려고 노력하였다.

Chapter2: “The Great Ming and East Asia: The World Order of a Han-Centric Chinese Empire, 1368-1644”

Florence Hodous

주요 질문. 명나라는 제국이었는가. 제국이었다면 어떤 의미에서 제국이었는가.

답. 명나라는 홍무제와 영락제가 제국의 기틀을 놓은 나라로서, 제국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대외팽창이나 영토확득을 목적으로 한 제국은 아니었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통일성과 정통성을 성립시켰다는 의미에서 제국이었음.

명나라의 기틀을 놓은 두 황제는 명태조/주원장/홍무제(1368-1398)와 명성조/영락제(1402-1424)임. 두 황제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으며 제국의 기틀을 다르게 성립시킴.

홍무제는 원나라의 몽골 지배를 전격적으로 거부하는 정통성 확립을 추구.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이은 한족의 정통 제국 성립이라는 의미를 중시. 천하 개념으로 보편적이고 무한한 지배를 이념화했다는 점에서 지구사에서 출현하는 제국의 형태를 이어받음.

이에 따라 화이의 구분으로 명확한 경계에 기반한 한족의 제국을 성립시킴. 오랑캐에 대한 지배에서 조선, 일본, 유구 등에 대해서는 조공질서를 성립,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에 대해서는 복속 정책을 추진. 기타 아시아 내륙 지방의 유목민에 대해서는 정복, 유화, 경제적 유인 제공, 분할통치, 상호 반목 조장 등의 정책을 사용.

내정에서 홍무제는 원나라의 유제를 거부한다고 했지만 사실 원나라의 영토를 그대로 물려받아 지키려고 했고 내정에서는 완전한 중앙집권국가를 이룩하려고 노력. 원나라의 중앙집권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기존의 제상과 선비들의 힘을 줄이고 왕자들을 활용한 친정체제를 구축. 국방에서도 왕자들에게 변방의 주요 지역을 맡겨 방비를 구축하는 제도를 성립. 이념적으로는 성리학에 기반한 통치이념을 성립.

그러나 영락제는 스스로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인 만큼, 제상과 친족을 믿지 않고 스스로 임명한 환관과 선비들에 의해 관료층을 구성. 과거제도를 만들어 유교 이념을 정립함. 결국 홍무제, 영락제 모두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위계적 관료체계를 이루었지만 이들에 대한 통치의 문제로 이후 중앙집권의 약화 현상에 시달림. 15세기 이후 환관 권력이 강해지면서 중앙집권이 약화되고 결국 명나라 쇠퇴의 원인이 됨. 선덕제, 명 선종(1425-1435)부터 사대부와 환관 권력 다툼에서 왕권의 약화.

제국적 통치의 하나의 축은 일반 백성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권력의 시작. 주희의 가례를 기반

으로 한 강력한 통치. 몽골 변발 등 원나라 유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 과거의 실시로 중앙집권적 관료 및 교육제도 강화. 서원을 중심으로 한 의례도 강조. 흉무제는 제국적 수취제도를 정착. 명부를 만들어 중앙집권적 세금제도를 정비함. 그러나 점차 인구에 대한 지속적 파악이 어려워지면서 통치체제 약화.

일조편법의 실시. Single Whip method. 명 중기 이후 각지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되던 세금 개혁을 정리하여 만력 연간에 장거정이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던 것. 첫째는 세금의 일원화를 추진다. 명나라의 세금제도는 역대 왕조의 것을 이어받아 "세금은 땅으로부터 나오고, 요역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賦出於地,役出於丁[1])"의 원칙이었으나, 점차 토지세를 중심으로 한 한가지의 세목으로 통일되는 경향으로 진전.

둘째는 세금의 화폐화를 추진. 명 초의 세금 납부는 현물 납부가 기본 원칙으로 때에 따라 비단이나 화폐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 하지만 선덕제 이후로 점차 동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다가, 정통제 이후로는 은으로 납부하는 것도 허용. 이러한 변화는 현물 납부의 경우 운반의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가, 현물의 가격이 변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안정된 세금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민간에서의 화폐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편하게 여겼기 때문.

대외관계에서 명나라는 몽골, 이후에는 여진에 대한 경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 영락제의 몽골 정벌 실패 이후 만리장성 건설. 이후에 공격적 변방 정비는 점차 포기되고 수세적 정비체계만 지속. 명나라는 동부 몽골과 서부 몽골의 상호 반목을 조장하는 정책을 실시. 반면 티벳에 대해서는 종교를 축으로 한 유화정책 추진. 티벳 불교에 대한 영락제의 존중. 이후 보편적 제국 지배의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노력.

조선, 일본과의 조공제도 실시. 조선이 가장 모범적. 조선 왕에게는 친왕의 지위를 부여. 일본에 대해서는 양면적 관계. 특히 왜구의 침탈이 큰 문제로 대두.

마지막으로 지구사와의 관계에서 스페인, 포르투갈이 신대륙의 은화를 도입, 또한 일본도 은 생산 증가. 이후 명나라 경제제도가 점차 상업화, 은화 중심으로 바뀌면서 명나라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

임진왜란도 명나라 쇠퇴의 한 원인이 되었지만, the court's financial deficit, the factionalism and corruption of the bureaucracy, and domestic peasant rebels + 환관세력 강화로 인한 정치 불안이 쇠퇴의 원인으로 논의됨.//

Chapter3: "East Asia under the Expanding Qing"

Frederik Vermote

* 청의 등장 이후 건륭제 시기까지를 다룸

* Key themes of the chapter -> the limits of imperial expansion, the fault lines of ethnic and cultural difference, the balance of centralization versus decentralization, and the management of Qing relations with other polities along their empire's frontiers, the effects of frontier expansion(러시아 제국과 같은 다른 제국과 만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청의 지배방식 등등

<Jurchen Origins>

* 누르하치의 여진 통일 이전 명은 여진을 해서(북), 건주(서), 동해(야인: 동남) 여진으로 크게 삼분하여 통치함

* 송은 요와 서하 등으로 인해 상당한 골치를 앓고 있어서 여진(금: 1115년 아구타가 건국)을 이용하여 요를 견제하려 함

* 송나라 휘종 당시 요나라에 대한 양면공격에서 북방 공격을 맡은 여진은 이후 송의 의지와는 달리 1127년 송의 카이펑을 공격하여 휘종을 사로잡고 남송과 대립함 -> 정강의 변(靖康一變)

* 금은 맹안모극제로 부족민 사회를 군사/행정적으로 운영함

* 1234년 금의 수도 채주(蔡州)가 몽골에 함락되면서 금은 멸망함; 금은 이전의 부족사회로 회귀함 -> As with many other steppe peoples, the Jurchen retained a collective memory of the Great Jin as a sort of imperial "ideology in reserve" that might one day be deployed under the right conditions

<Formation of the Manchus>

* 여진은 아이신 기오로족의 누르하치와 그 아들 흥타이지, 도르곤의 지휘 하에 세력을 확대함 -> 건주여진의 통일

* 초기 세력확대 과정에서 명에 조공하여 그로부터 건주위 수장을 직위를 부여받고 명과의 무역을 주도하면서 이를 통해 얻은 부를 활용하여 군사적으로 성장하여 다른 여진부족을 제압함; 이러한 성장한 힘을 바탕으로 임진왜란 당시 명에 조선에 대한 지원을 타진하기도 함

* 임진왜란 이후 건주여진은 명의 쇠퇴를 틈타 후금을 건국하고 명에 대한 압박을 시작함

* 1616년 누르하치의 후금 건국 및 1636년 흥타이지의 대청건국('여진' 대신 흥타이지는 '만주'라는 명칭을 사용함), 그리고 1644년 명의 몰락

* 명 멸망의 원인

- 청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기보다는 만력, 천계, 숭정 등 명조 마지막 임금이 국사를 돌보지 않은 것 등 국가적 리더십 문제가 드러남

- 경제적으로 은의 부족문제와 열악한 농업작황, 그리고 국내적 반란의 문제가 있었음; 또한

여진으로부터 인삼을 수입하고 이에 대해 은을 지불하는 것이 은의 유출문제를 심화시킴
 - 기후변화의 문제("The Little Ice Age")로 인해 홍수, 가뭄, 흑한 등의 문제가 다발적으로 발생함 -> 이상 극단기후의 문제가 1640년대에 가장 심했음; 청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아 명공략의 불가피성이 가중됨
 (83쪽에서 도르곤을 누르하치의 형제로 적은 것은 흥타이지의 형제의 오기인 듯)

* 이자성의 반란으로 명이 자중지란에 처했고, 산해관의 오삼계와 도르곤의 협력으로 북경이 함락됨 -> 1644년 순치제 복림이 등극

<Imperial Consolidation and Expansion>

* 오삼계에 의해 명항실 후손인 주류량 지도하의 남명의 저항이 1662년 종식될 때까지 청은 권력을 공고히 하지 못함

* 또한 복건 등 해안지방에서 정지룡 등의 저항이 있었음; 이후 정씨집안 인물인 정성공의 저항 및 대만 정벌 -> 청은 정성공이 대륙과 교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1669년 일종의 해안 소개(疏開)정책을 펴; 강희제의 대만정벌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1683년 대만정복, 이로써 명대 수준의 중국 영토에 대한 통일 달성)

* 강희제는 또한 운남의 오삼계, 광동의 상가희, 복건의 경중명 등의 반란, 즉 '삼번(三藩)' 등 지방세력들을 반란을 제압함(1673-1681); 삼번의 난을 주도한 3인은 명멸망기 한때 청을 도와 명정벌에 앞장 섰던 한인 장군이었음

* 대만정벌 이후 1684년 해안 소개정책 완화

* 이후 강희, 옹정, 건륭제를 거치면서 영토확장이 지속됨 -> On land, the three emperors undertook a series of ambitious campaigns that nearly doubled the size of the Qing Empire. The dynasty extended its rule westward into Outer Mongolia (effectively under Qing control by 1697), Tibet (1720), Kokonur/Qinghai (1724), Jungaria (1757), and the Tarim Basin(1759). By the late 1700s, the forces of the Qianlong Emperor were even campaigning in lands as far distant from the imperial center as Nepal and the Toungoo(미얀마 똥구 왕조) and Đại Việt(대월국) empires in Southeast Asia

<Institutions of Empire>

* 누르하치, 흥타이지, 도르곤 시대에 후대 청을 이끈 중요한 제도, **팔기체제(the banner system)**와 만주어 장려를 통한 정체성 유지노력(the fostering of Manchu language and group identity)의 토대가 이루어짐

1. The Banner System

* 4기 -> 8기 -> 만한몽 각 8기로 진화한, 일종의 군, 행정, 혈연적 가계의 복합체계임 -> 왕의 직할군

참고:

팔기제도는 단순히 군사조직 뿐 아니라 정치, 경제분야까지 함께 아우러진 사회조직이자 정치조직이었습니다. 누르하치는 팔기군을 이용하여 호구통계, 징집, 징세, 병력 동원을 위한 군사행정업무와 편성, 훈련, 전투 등의 군사행동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팔기군은 말 그대로 여덟개의 깃발이란 뜻으로, 정황기, 양황기, 정홍기, 양홍기, 정백기, 양백기, 정람기, 양람기로 구성되었으며, 군정과 민정이 분리되지 않고 문무 관료가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 Qing banners served simultaneously as **units of military organization, civil administration, and economic production** -> 팔기군 소속은 세습되었으며 일종의 봉건제로 작동하였으나 8기제도의 핵심은 봉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노예를 받은 것임

* 기타 나머지 3/4의 군대인 녹영군은 병부의 관리를 받음 -> 명나라 한쪽으로 구성

* 청은 팔기체제를 통해서 다양한 종교, 혈연 부족을 왕조에 충성하는 제국적 질서 속에 묶음
-> Through the banner system, the Qing also created an imperialized form of society, in which prior clan, tribal, ethnic, and religious ties were subsumed into the banner structure and subordinated to service to the dynasty(86) -> 기존의 지역의 질서를 분열시키고 새로운 조직화를 이루어 내는 도구로서의 8기체제 -> 대부분이 비만 주족으로 구성되어 제국의 다양성을 드러냄 ->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엘리트의 배타적 특권을 위한 보호막으로 변화하고 종족적 특권과 차이가 강화됨: 개방성의 상징이 배타성의 상징으로 변화함

* 1760년부터 아편전쟁까지의 청대의 평화는 그러나 팔기제의 유용성을 감소시킴 -> 전쟁의 부재로 유럽과의 군사력 격차가 커짐

* 화력무기의 낙후, 8기로 인한 재정의 부담 등이 이후 청 군사력 약화의 원인이 됨

<Manchu Language>

* 만주적 정체성의 유지를 위한 노력의 하나 -> 1645년 도르곤에 의한 변발령

* 이와 함께 1599년 누르하치에 의한 만주어의 창제와 이를 공식적 문서에 사용하기 시작함

* 만주어는 안보적 언어로서 특화되어 한문으로 번역시 일부 중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빠뜨려 만주어를 배우지 않고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

* 옹정제, 건륭제 등은 궁중에서 중국어가 점점 더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여 적극적으로 만주어의 사용을 장려함

* 건륭제는 불경의 만주어 번역과 청사의 만주어 편찬에 주력함

* 19세기 이전과 이후, 즉 청의 융성기와 쇠퇴기의 구분은 8기제와 만주어를 통한 만주적 정

체성의 유지 및 약화시기와 일치함

<Government Ministries>

- * 명대의 6조로 이루어진 상서성 체제를 그대로 사용; 과거제 유지
- * 청의 유습인 왕과 장군, 친척 등 간의 협의제를 그대로 유지함 -> Deliberative Council of Princes and Ministers (Yizheng Wang Dachen Huiyi 议政王大臣会议)를 활용함 -> 이를 통해 정보가 차단되는 경향이 있는 Grand Secretariat (Neige 内閣: 상서성을 관리)을 우회하기도 함
- * 지역은 18개 성과 기타 만주, 티벳, 회강(지금의 신장), 내외 몽골, 준가리아 등으로 구성됨 -> 이러한 특별지역은 공식적으로는 팔기의 총독이 파견되었으나 실제로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력자가 다스렸고 상당한 자치가 부여됨
- * 만주지역은 특별히 관리됨 -> the entire region was fenced off with an elaborate "Willow Palisade" (Liutiao Bian 柳條邊) composed of trenches and embankments planted with rows of interwoven willow trees. Both Han settlers and Mongol pastoralists were forbidden from traveling or settling past the bounds of the Willow Palisade. In theory, it was to remain an exclusive preserve for Manchus and those honorary Manchus, the soldiery of the imperial banners (including, by extension, Han and Mongol bannermen)
- * 기타 번속 및 속지가 존재; 이들은 Ministry for Administering the Outer Regions (Manchu: Tulergi golo be dasara jurgan/Chinese: Lifan Yuan 理藩院)을 통해서 관리됨
- * 이번원에는 거의 한족 출신이 고용되지 못했고 만주어와 몽골어만이 사용됨; 신장과 러시아 등 모든 문제는 이번원에서 관리 -> 사실상 국내문제로 다룸

<Control of Frontiers and Subjects>

- * 내륙 아시아는 기후가 척박하고 인구가 적어서 청에 필적할 세력이 자랄 여건이 부족하였으나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수개의 제국이 탄생한 것은 사실(몽골 등)
- * 실제 청이 우려한 걱정은 로마노프 러시아와 오이라트 몽골의 준가르 칸국임
- * 1640년대 말 러시아는 아무르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일대 주민을 복속시키고 청과 교전하기도 하였고 1670년대 말부터 준가르 몽골은 단독 혹은 러시아와 연합하여 청을 압박함
- *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여 과거 명대의 경우 조공, 이이제이 등의 전법을 구사했으나 초원지역에 익숙한 청은 직접 공략에 나섬; 1758년 준가르를 패배시키고 멸절정책을 구사함
- * 러시아에 대해서는 보다 온건한 조치를 취함; 준가르 공략을 위한 방법이기도 함 -> 두 개

의 조약을 러시아와 체결(the Treaty of Nerchinsk in 1689 and the Kiakhta trade treaty in 1727) ->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 청의 동북변과 북변에서 러시아와의 경계가 확정됨

* 러시아와 청은 제국으로 상대를 대했기 때문에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해야 했으며, 의전상 예외적인 프로토콜이 진행되기도 했음; 그럼에도 양국간 이러한 교섭을 가능하게 한 것은 두 가지 요소에 기인했음

- 러시아의 경우 통상의 목적, 청의 경우 준가르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방지

- 몽골과 예수회라는 3자의 지원; 특히 청의 편에 서서 노력한 예수회 신부의 노력이 중요했음(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당시 강희제가 파견한 2명의 예수회 신부는 몽골 중재자(준가르편에 설것이 우려되었음)를 따돌리고 라틴어로 직접 러시아측과 의사소통함; 문서는 노어, 만주어, 라틴어로 작성)

* 양국은 경계 확정을 통해서 내륙 아시아에서 양국의 영역을 결정하고 인구와 물류의 안정적 통제라는 공동의 이익을 도모함

* 이에 비해서 준가르 몽골의 몽골 통일 노력은 유동성과 변동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청에게는 부담이었으며 바이칼호 연안과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에게도 역시 불안정의 요인이 됨 -> 준가르족의 멸절로 귀결 -> 이제 내륙아시아는 러시아와 청의 영역으로 안정화됨

<The Qing in Decline>

* 18세기는 대체로 청대 평화의 시기였으나 18세기 후반부터 인구증가에 대해서 경제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고 남쪽에서 아편문제가 심각해짐

* 중국 국력의 허약한 실체를 드러낸 아편전쟁의 발발(98) -> The result was the Anglo-Qing Opium Wars (1839- 42 and 1856- 60), two mismatched contests that abruptly laid bare the Qing's failure to keep abreast of military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mong its imperial rivals.

<Qing Legacies>

* 청은 과거 중국왕조처럼 한족 중심의 작은 중국이 아니라 중외일가의 정신을 표방한 다민족 국가를 형성함 -> "centre and periphery are one family (Zhong wai yi jia 中外一家)"

* 또한 청은 천하질서 속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인에 의해서도 잘 정비된 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평가되기도 함(케네, 볼테르(중국의 포용성, 관료제, 시험제도 칭찬) 등)

* 그러나 점차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은 유럽에 의해서 근대제국이 걸어가서는 안 될 경로를 겪은 제국으로 보이기 시작함 -> backward, inward looking, unenterprising, and uninterested in the latest innovations in science, technology, and administration

* 이후 한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역시 서세동점의 시대에 이르러 청에 대한 기대를 버

리고 조공을 그치면서 서구를 모방하는 문명개화의 길로 나아감

정체성을 지니지 않은 곳임//

Chapter4: “Southwest Asia 1300-1800: Ottomans, Safavids, and the Turco-Persianate Imperial Tradition”

Jack Fairey

FROM BEYLIK TO SULTANATE

- 1200년대 초, 오토만 왕조의 창건자이자 카이 부족의 족장인 Ertugrul이 이슬람으로 개종. 이보다 앞서, 몽골의 침입을 피해 아나톨리아 북서부로 이주. 셀주크 술탄국(Sultanate)의 봉신국 투르크멘 Beyliks의 하나로 출발.
- 1243년, 룸 술탄국이 몽골 일칸국(Ilkhanate)에 의해 해체되면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함. 이와 함께 유목 전사 민족 특유의 집단연대감(asabiyyah) 형성. 새로운 통치 정당성(legitimacy) 확보. 스스로를 전사(gazis)로 정의하면서 무슬림과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집단 내로 포섭함.
- 1320년, 투르크멘의 부족장과 비잔틴 제국에 불만을 품은 장수들이 오스만의 지휘 하에 '약탈 연합(plundering confederacy)'을 결성. 이후 오스만은 서로 다른 종족적, 종교적, 정치적 집단들의 '브로커'내지 '연합 결성자(coalition builder)'의 역할을 담당. 당시 오스만은 독자적 주화를 주도하는 등 독립을 주장했지만, 부족장의 칭호로는 단지 'Ertugrul의 아들 오스만'만을 사용.
- 1341~47년 비잔틴 제국의 내전 중, 비잔틴 제국 황제 요안니스 6세 칸타쿠지노스(John VI Kantakouzenos)는 오토만 군대를 테라키아로 불러들임. 무라드 1세(Murad I)는 비잔틴, 세르비아, 불가리아 제국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발칸반도에서 급격히 세력을 확장함. 1365년부터 1370년 사이 에디르네(아드리아노플)로 천도.

IMPERIALISM AS CRISIS MANAGEMENT

- 1400년대의 첫 20년간 오토만은 '오토만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위기에 직면함.
- 1389년 무라드 1세가 사망한 후, 그를 계승한 바예지드(Bayezid)는 중앙집권적 국가구조를 창설하고자 함.
 - 술탄에게 개인적 충성을 바치는 노예로 구성된 궁정.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 정복한 지역을 관록을 지급하기 위해 그의 노예에게 위탁한 땅이라고 주장함.
 - 1402년 티무르 베그 구르카니(Timur Lang)의 기치 하에 아나톨리아의 Bey들이 오토만 제국에 반란을 일으킴. (앙카라전투)
- 이후 오토만 제국은 왕실 내 후계자들 간의 암투, 농민과 유목민들의 끊임없는 반란에 시달림. 또한 아나톨리아의 투르크멘은 시아파(Shi'ism)를 받아들여 정통 수니파의 정체성을 가진 오토만 궁정과 불화하기 시작함. 라이벌 제국으로 사파비 왕조의 등장.
- 1511년, 샤 쿨루(Sahkulu)의 지도하에 투르크멘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킴. 술탄 바예지드 2세와 셀림 1세는 시아파에 대한 잔혹한 처형으로 대응.
- 메흐메트 2세(r.1444-46, 1451-81): 콘스탄티노플 함락, 아나톨리아, 에게, 카르파티아 산

맥 이남의 발칸인에 대한 통치 강화.

- 바예지드 2세(r. 1481-1512): 새로 획득한 영토 지배 공고화. 셀림 1세의 영토 팽창 기반 마련.
- 셀림 1세(r. 1512-20): 사파비의 위협 격퇴. 맘루크 술탄국 정복. 동 아나톨리아, 레반트, 아라비아, 이집트 정복.
- 술탄이만 1세(r. 1520-66): 오토만 제국의 전성기. 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시토 확보. 제국의 행정체계 완비.

SAFAVIDS: FROM SUFI TARIQAH TO MILLENARIAN EMPIRE

- 오토만이 그 정체성의 근원을 전사 부족장 (gazi chieftains)에 둔 것과 달리, 사파비는 1301년 아르다빌에서 사피 엘-딘(Sheikh Safi Al Din)이 창립한 수피 종교운동(Sufi movement, Tariqah)에서 시작됨.
- 샤이흐 주나이드(Sheikh Junayd, 1429~1460)에 이르러 Tariqah는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고유한 천년왕국의 대의를 추구하는 군사조직(military order)으로 변화. 주나이드의 손자 이스마일 1세 때 공식적으로 열두 이맘파(Twelve Shi'ism)의 극단적 교리 채택. 동아나톨리아와 서부 이란의 고산지역 투르크멘 부족들의 지지 획득.
- 16세기에 이르러 신생 사파비 국가는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이란,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 동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세력을 확장함.
- 사파비 왕조의 극적인 팽창은 당시 지도자 이스마일이 구세주(mahdi)이며, 그의 승리는 말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천년왕국적 기대를 일으킴. Qizilbash 군대는 사파비 또는 시아파의 적으로 간주된 이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
- 1514년, 오토만 제국과 사파비 제국 간 칼디란(Caldiran) 전쟁 발발. 셀림 1세가 이끄는 오토만 제국군은 대승을 거두고 사파비의 수도인 Tabriz까지 점령. 이 전투에서 패배한 사파비 왕조는 서부 영토를 대량으로 상실했을 뿐 아니라,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내부적 위신과 권위의 실추에 직면함. 이후 사파비는 페르시아와 티무르의 제국 전통을 소환하면서 황실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르크멘보다는 이란 및 페르시아 왕조와 스스로를 동일시함.
- 아바스 1세(r. 1587~1629) 이후 오토만 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체제를 군대-노예 조직(military-slave institution)으로 재정비함. 아바스 1세의 통치기는 사파비 왕조상 군사적 성공, 경제적 번영, 예술적 성취의 측면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함.

IMPERIAL SELF-UNDERSTANDING

- 메흐메트 2세의 서한: "by the grace of God, Emperor of all Asia and Greece", 'my Empire' 등의 수사 사용. 그리스인이 술탄에게 공식청원서를 쓸 때도 종종 'emperor'로 호칭했으며, 신성로마제국 황제 샤를 10세 또한 술탄이만을 'emperor of Turkey and Asia, Greece, etc.'라고 부른 사례가 있음.
- 그러나 오토만, 아랍, 페르시아 문서에서는 서양의 '제국'의 의미를 대체할 만한 단어를 찾을 수 없음. Ex) sultanate, 'shah-dom' 이외에 'world governance', 'refuge of the world', 'world conquest', 'world sovereignty' 등의 개념 사용.
- 서남아시아에서 정치체(polities)를 스스로 지칭하는 데 흔히 사용된 용어는 'devlet'과 'memalik'였음.

- 그보다 오토만과 사파비는 다른 정치체와 자신들의 '제국' 을 구분할 때, 스스로를 앞선 세계정복자, 예컨대 잼시드(Jamshid), 알렉산더 대왕, 호스로(Chosroes), 징기스칸, 그리고 티무르 랑 등의 후계자 또는 계승자로 정의함.
- 과거 세계 정복자와 술탄의 비교는, 제국에 대한 그들의 비전이 본질적으로 왕가의 핏줄이나 개인적 자질에 의거했음을 보여줌.
 - 오토만과 사파비 제국은 언제나 특정 dynasty에 대한 충성심에 기초하였으며, 그 창건자의 카리스마와 구분되는 실체로서의 국가 개념을 발전시키지 않음.
 - 서남아시아는 기본적으로 귀족의 혈통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등 신분제가 존재하지 않은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의 근간은 신이 선택했다고 믿어지는 왕실의 신성한 혈통에 대한 믿음에 있었음. Cf) 오토만의 왕위 계승
 - 신에 의해 선택 받은 혈통의 계승자들은, 필연적으로 이슬람을 수호하고 정의를 집행할 책무를 이행해야만 했음. 특히 전쟁에서의 승리는 신의 가호의 현현을 의미했으므로 제국의 유지에 극히 중요한 요소가 됨.
 - 신의 위임을 받은 오토만과 사파비 왕조의 통치자들은 정치적 권위의 유일한 원천이 되었음. 궁극적으로 모든 땅은 그의 소유이고, 모든 법률은 그의 뜻의 반영이었음. 이와 같은 인격적 통치의 속성은, 술탄이 사망하면 그가 발급한 모든 허가과 보상(국제적 조약을 포함해서)이 무효가 되며, 새 술탄에 의해 갱신된 관행에서도 드러남.
- 이로 인해 오토만과 사파비 제국은 점차 왕실의 확장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15세기부터 16세기 사이, 두 제국은 점차 술탄의 노예(kul)로 군과 정부의 중요 직위를 충원함.
- 오토만과 사파비 왕조의 전성기는 성직자 토지(prebendal)에 기반한 기병(sipasi)로부터 머스킷 보병과 전문적 관료 집단으로의 이행 과정과 궤를 같이 하였음. 두 제국은 후자를 주로 노예가 된 기독교인(오토만: 발칸 기독교인/ 사파비: 그루지야와 아르메니아인)들로 충원하였으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prebendal grants를 얻던 토지를 점차 왕실의 처분에 따라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tax-farm으로 변화시킴.

IMPERIAL VISIONS OF WORLD ORDER

- 서남아시아 제국은 세계를 자신을 정점에 둔 위계적 질서의 관점에서 파악함.
 - '술탄 중의 술탄', '술탄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자', '세계의 왕들에게 왕관을 하사하는 자'
- 오토만은 혈연적으로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징기스칸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인정하여 스스로 khan이라는 호칭을 쓰는 한편, 크림리아 반도의 징기스칸의 혈통을 가진 통치자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토만, 사파비, 무굴, 샤이반(Shaybanids), 사디스(Sa'dis)와 같은 무슬림 국가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 그 아래에는 보다 작은 무슬림 통치자, 가장 아래는 비무슬림 공(prince)이 있었음.
- 기독교 통치자들에 대해선, 프랑스처럼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는 예외적으로 çasar라는 호칭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기독교 왕(kiral)이나 명백히 기독교적인 호칭, 예컨대 duke, tekfur, voivoda, knez 등으로 부름.
-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인 사파비는 오토만 보다는 덜 차별적이었으며, 이국의 통치자는 일반적으로 padishah로 부름.

BORDERLANDS

- 오스만 제국
 - ① 술탄이 직접 통치하는 중심부: 세금을 납부하며 prebendal system에 통합된 지역. '두 개의 바다와 두 개의 땅'
 - ② 반(半) 자주 지역: 매년 조공(tributes)을 바치지만 직접 통치하지 않는 지역. 몰다비아, 왈라키아, 트란실바니아, 이집트, 라구사 공화국, 동아나톨리아의 쿠르드 토후국(Kurdish Emirate)
- 사파비 제국: 샤의 직접 통치지역(Khassa)과 성직자로서의 'mamalik', 조공을 바치는 봉신 영역(tribute-paying vassal territories)
- 이밖에 영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유목 그룹 존재.
- 제국의 가장 외부에는 '常勝의 경계'(serhadd-i mansure)와 'jihād의 영역'(dar al-cihad)이 존재.
- 오스만-합스부르크 전쟁 중에는 다뉴브 지역에서 오스만과 합스부르크에 모두 세금을 납부하는 공동통치(condominium rule) 현상도 나타남.
- 현실적으로 오스만 인들은 베네치아-달마시아로부터 폴란드에 인접하는 긴 국경선 개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그런데 오스만은 베니스와 폴란드를 독립국이라기보다는 오스만 주권 하에 놓인 봉신국(vassal state)으로 간주. 많은 경우 술탄은 국경을 설정하는 조약의 전제조건으로 조공을 요구함.

INSTITUTIONS

- 오스만과 사파비의 행정 체계는 이슬람 율법, 행정적 발전 과정, 페르시아의 문헌 등 종교적, 역사적 공통점으로 인해 유사한 조직과 구조를 갖춤. 예컨대 국가는 'men of pen', 'men of the sword', 'men of transactions'과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들을 떠받드는 평민 등 4개 요소로 구성되며, 머리에는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요소들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책무로 삼는 통치자가 존재한다는 body politics의 관념
- 두 제국의 보다 중요한 특징은, 비무슬림에 대한 태도에 있었음. 양자는 조로아스터교로부터 기독교까지 다양한 신앙에 대해 관용적이었으면서도, 국가 자체는 근본적으로 국가 종교(Hanafi Sunni orthodoxy/ Twelver Shi'ism)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함.
- 이에 따라 이교도 집단은 반자율적 공동체(taife)나 민족 집단(millet)으로 분류되었고, 이들은 제국에 대한 충성심, 특별세(jizya), 법적 지위의 열등성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별도의 법원, 학교, 구호단체 등 내부 문제의 자주성(autonomy) 획득.
- 두 제국의 가장 높은 재상은 'grand vizier'로서 하급 vizier, 장군, ulema로 구성된 국가 위원회를 주재함.

Chapter5: “South Asia 1400-1800: The Mughal Empire and the Turco-Persianate Imperial Tradition in the Indian Subcontinent”

Murari Kumar Jha

무굴제국은 티무르의 후손 중 한명인 바부르(Babur, 1483-1530)에 의해 1526년 건국됨. 바부르는 우즈베크인들에 의해 중앙아시아의 트란스옥시아나(Transoxiana)에서 축출된 후 남동쪽으로 진출. 편잡 지방을 시작으로 갠지스평원까지 진출. 악바르대제(Akbar, r.1556-1605) 재위 시에 대제국으로서의 기틀을 다짐. 이후 자한기르(Jahangir, r.1605-27), 샤자한(Shah Jahan, r.1627-58), 아우랑제브(Aurangzeb, r.1658-1707) 등 비교적 유능한 황제들 치하에서 전성기를 누림.

무굴제국은 제도적으로 기존의 행정, 군사조직을 최대한 보존. 특히 지방의 재정조직을 그대로 활용. 대표적으로 iqta system - 세금징수 방식의 이원화. 황제직할령과 그 외의 국가소유령을 구분하여 전자에서 징수한 세금은 황제의 재정에 직접 유입되고, 후자에서 징수한 세금은 관료와 이슬람학자, 지역유력자에 배분. 지역유력자에 할당된 토지의 경우 이미 이들이 이전부터 보유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인정.

약 1,000명의 관료, 관리가 7,000만~1억2천만 명의 인구를 관리, 통치. 인구 대비 관료의 비율이 극히 낮았기 때문에 간접통치가 이루어짐. 대다수 인구는 제국과 황제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각각의 사회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짐.

중동과 서남아시아의 무굴제국, 오스만제국, 사파비드제국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여 번성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님: 아메리카와 일본으로부터의 은의 유입과 유통으로 유동성의 증가가 거대제국의 경영을 원활하게 함. 다른 한편, 제국 후반으로 갈수록 유동성의 증가로 지방의 자민다르(Zamindar)의 독립성이 강화됨. 무굴제국의 종주권(suzerainty)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지역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 “regional centralization.” 고대로부터의 인도 정치전통 “layered sovereignty”의 부활. 1760년대 이후 영국동인도회사에 벵골 진출의 기회를 제공.

무굴제국의 정치문화, 전통: 힌두 왕국의 전통과 몽골, 페르시아, 아랍 전통이 혼합됨. 무슬림 지배층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들이 서로의 문화를 차용하는데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음. “Vedic rituals and Islamic hadiths, Chinggisid laws and Timurid traditions, Sanskrit epics, and Persian mirrors for princes”

종교적 관용: 악바르대제 재위시 비무슬림 주민들에게 부과되던 인두세(poll tax)를 폐지. 비무슬림 신민들 역시 무굴제국에 자발적으로 복종. 힌두학자들이 산스크리트어로 악바르대제를 비슈누의 현신으로 찬양. 일부 이슬람학자들이 악바르를 이단으로 비판하기도 함. 이러한 관용 덕분에 자한기르, 샤자한, 아우랑제브는 신민들의 존중을 받음.

무굴제국의 성공요인은 중앙집권과 다양한 정치세력과 사회집단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유지했다는 데 있음. “Mandala”, “Galactic Politics.” 무굴제국은 영국 동인도회사에 제국의 경영방식에 관해 많은 교훈을 줌. 동인도회사의 성공은 상당부분 무굴제국의 제도와 관행을 채택한 데 기인.

Chapter6: “Northern Eurasia, 1300-1800: Russian Imperial Practice From Tsardom to Empire”

Paul W. Werth

1. 머릿말

- 초기 근대 시기 놀라운 현상은 러시아가 아시아세력으로 등장한 것임
 - 1300~1800년의 기간을 하나의 시기로 구분하여 ‘러시아’라고 불리는 하나의 정치체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자 함.
 - 이 시기 러시아는 서구로부터 기술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동쪽의 이웃들로부터 많은 관행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됨.
 - 18세기 짜르 엘리트들은 하나의 제국(an empire)으로써 자신들의 나라를 의식할 정도로 발전함. 즉 다양한 인민들을 지배하고 문명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에 기반하여 방대한 지리적 공간을 확보함.
- 본문에서 러시아의 아시아 제국의 역사(the history of Russia’s Asian empire)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다음 3가지 원칙적 이슈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함.
 - ① 5세기에 걸쳐 러시아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상상하고 정당화한 방식들,
 - ② 아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러시아의 환상적인 영토 확장을 추진해나간 동기들,
 - ③ 러시아의 제국적 지배의 주요 기구(제도)와 관행들.
- 러시아의 경우 유럽으로부터 아시아를 구분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모스크바대공국의 대두와 러시아 제국으로의 발전 과정을 개괄하고자 함.

2. 러시아, 아시아, 유럽

-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근대초기 제국은 다음 3지역으로 구성됨.
 - ① 시베리아: 러시아의 북아시아 식민지.
 - ② 폰티-카스피안 초원지대 : 동슬라브의 주거주지인 삼람지대로부터 남쪽 흑해까지 걸침
 - ③ 북부 고원 및 코카커스의 산악 지역: 러시아와 페르시아, 오토만제국과 접경지역.
- 위 지역과 러시아의 남은 다른 지역과 대비시, 유럽과 아시아간에 인위적으로 엄격히 구분함
 - 러시아는 동쪽으로 가지 이전에 유목인들과 오랜 관계의 역사를 지님.
 - 러시아 자체의 지정학적, 문명적 정체성의 문제는 유럽과 아시아간의 구분이 틀렸음을 보여줌.
- 러시아는 18세기에 들어와서 유럽 왕가(European family)의 하나의 구성원이 됨.
 - 우랄산맥이 유럽과 아시아간의 경계가 됨.
 - 모스크바대공국/러시아를 아시아와 유럽 이웃국가 두곳 모두으로부터 관습, 정당화 전략들을 받아들여 사용하는 하나의 유라시아(Eurasian) 정부형태로 간주하게 됨.

3. 모스크바대공국(Muscovy)의 대두와 성장: 개괄

-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 포함) 역사는 키예프 공국(Kievan Rus)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감

- 키예프공국은 공동의 언어, 종교 및 왕조를 공유하는 번국가들(princely states)의 느슨한 중세 연방 형태임.
- 모스크바가 태공(grand prince)이라는 직책으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몽골 칸의 충성스런 하인(loyal servitor)이라는 지위를 떠맡는 군주들의 능력에 달려 있었음.
- 몽골 지배로 인해 다른 공국들중 경쟁자에 대해 모스크바의 우위를 강화시키는 결과 초래함.
- 킵차크칸국(금장칸국, the Golden Horde)의 지지하에, 모스크바대공국은 영토 확장의 시대를 겪었으며, 그 시대는 다음 3개의 부분적으로 겹치는 시기로 구분됨.
 - ① 첫 번째 확장: 모스크바가 인접한 슬라브 및 북동 유럽의 정통 기독교 공국(公國)들을 정복하고(주변 공국<Rus>의 땅을 좁는다는 말로 표현될 정도였음), 다른 열강들(스웨덴, 폴란드-리투아니아, 오토만 제국, 킵차크칸국)에게 중요한 경쟁자로 출현하게 됨.
 - ② 두 번째 확장: 킵차크칸국의 땅을 좁는다는 말로 불릴 정도로, 16-18세기에 걸쳐 몽골 제국의 일부였던 모스크바의 동쪽과 남쪽 토지를 및 이슬람 칸국의 후계자들에게 속했던 지역까지 합병함.
 - ③ 세 번째 확장: 모스크바의 지배가 키예프 공국과 몽골의 유산을 뛰어넘어 확대됨. 17-18세기에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동쪽의 북부 초원 지대로 확장하고, 18세기초-19세기초까지 서쪽과 남쪽의 새로운 영토-발틱지역, 핀란드, 폴란드 및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장함. 이시기 러시아는 스페인과 영국에 비견될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강대국(Great Powers)의 하나로 성장함.
- 이러한 모스크바의 성장으로부터 1917년 혁명에 이르기까지 확장의 전체 시기에 2개의 다른 왕조, 즉 류리키드(Rurikid)와 로마노프(Romanov) 왕조가 러시아를 지배함.
 - 류리키드(Rurikid) 왕조로부터 로마노프(Romanov) 왕조로의 전환은 1721년에 발생하였으며, 이시기에 러시아는 유럽(대부분은 중부 유럽)의 국가운영 모델로 다시 전환하고 문명 분리에 관한 새로운 양상들을 채택하는 중요한 변화를 겪게됨.
 - 피터 대제가 자신을 황제로, 자국을 '러시아 제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전과 달라진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성문화시켜 나감.

4. 정당화와 상징물들

- 짜르(tsar)라는 직위는 로마의 케사르의 슬라브식 형태로 따온 것임. 이반 4세(1533-84) 때 짜르로 즉위함. 짜르 직위는 황제라는 가정을 반영함.
 - 러시아 정교와 비잔틴 및 공국 엘리트들, 그리고 몽골 칸들에게서 그 모델을 따온 것임.
 - 모스크바대공국의 짜르는 킵차크칸국의 후계자로 자처함.
 - 모스크바사람들은 자신들의 국가와 수도를 '신이שראל'과 '신예루살렘'으로 상상함.
 - 비잔틴과 연계를 유지하는 동안 러시아 궁정은 유럽 군주제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함.
- 짜르의 이미지로서 그 모델이 비잔틴 왕에서 로마 황제로 전환됨.
 - 1721년 피터 대제는 황제(emperor)라는 라틴어 직위를 채택하였으며, 그의 나라는 러시아 제국(Russian Empire)가 됨.
 - 캐서린 2세(1762-96)는 러시아는 유럽 국가라고 선포하였으며, 이후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을 유럽의 문명인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함.
- 18세기초에 영토에 대한 새로운 의식, 선입견이 생김.

- '통치의 좀더 필수적인 공간적 견해'를 획득함. 국가 영토에 대해 개념적 및 물리적 장악을 심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 ① 17세기말 러시아는 오토만 제국과 경계를 분명히 긋고자 함.
- ② 러시아는 시베리아로 확장하면서 청국과 접하게 되어 네르친스크조약(1689), 카흐타조약(1727)을 체결할 필요를 느낌.

5. 동기들

- 러시아 영토 확대의 2가지 주요 동기: 지정학 및 경제적 고려.
 - ① 지정학적 고려의 예로서, 모스크바대공국이 1552년 카잔 정복시: 모스크바가 스웨덴, 리투아니아, 오토만제국처럼 좀더 크고 강력한 국가들에 대항하는 과정이었음.
 - 전략적 고려사항으로 유목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 유목민들의 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는 초원 지역에 좀더 관여하게 되고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고 봄.
 - 피터대제는 '대전략(grand strategy)'으로서 이러한 지정학적 비전을 행동으로 옮김.
 - ② 경제적 고려 사항으로 무역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큼.
 - 스칸디나비아로부터 콘스탄티노플에 이르는 무역로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19세기에 키예프에 정권 세움.
 - 캐비어, 비단 무역로 확보, 유라시아 북부지역에서 모피 공급을 목표로 함.
 - 모스크바대공국의 국가 예산의 주요 부분이 관세 수입으로 충당되면서, 러시아는 해외 상인들의 관심을 끌게 됨.

6. 제도(기구)들과 관행들

- 광대한 유라시아 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야의 제도(기구)와 관행들을 실시함.
 - 모스크바가 남동쪽 국경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함. 유목민의 습격으로부터 정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요새들은 말뚝울타리와 보루(독)으로 설치됨.
 - 시베리아에서 요새(forts)들은 코삭인들과 군인들을 위한 주둔지로 사용되었으며, 나중에는 주요 행정 중심이 됨.
 - 러시아식의 식민화는 좀더 정교하게 진행됨.
- 모스크바대공국은 초원지대 외교에도 깊이 관여함.
 - 초원(스텝)지대와 시베리아에서는 현지 지배층을 인질로 잡는 관행을 취함.
 - 평화와 군사동맹을 적은 서약문(shert)을 채택함.
 - 러시아는 정복한 사회의 전통과 관행에 근거하여 제국주의적 권력을 확대해 나감.
- 모스크바대공국과 초기 러시아 제국은 초원지대로 확장하면서, 유목민간 경쟁과 싸움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러한 양상을 러시아에 유리하게 활용함.
- 러시아는 동남부로 확장시 비러시아 신민을 요원으로 징집시킴.
 - 이들 비러시아인들을 초원지대에서 행정가, 번역가, 무역상, 정보통으로 활용함. 이들이 러시아 제국의 역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 러시아제국의 중요 전략은 비러시아 엘리트들의 충원과 선출이었음.
 - 이들 다인종적 엘리트들은 공유된 언어나 문화보다는 사회적 특권, 왕조에 대한 충성심 및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진출에 관여한 것들로 얽매어 있음.

- 러시아 지배의 첫 번째 원칙은 실용주의적인 차이의 인정이었음.
 - 종교상의 개종도 하나의 수단이었으나, 전반적으로 다양한 차이를 인정함.
 - 18세기말 이러한 관용은 하나의 관행에서 핵심 정책으로 전환됨. 이는 중상주의 경제학자와 계몽주의적 사고의 이데올로기적 기반 및 제도적 기반으로 간주됨.
 - 18세기 러시아 정부는 국정상의 경찰국가 모델과 관용이라는 온건한 계몽주의적 개념에 의해 이끌어져서, 비-정교회 정교의 효능을 질서와 안정의 근원으로 인정하게 됨.
 - 19세기초에 종교적 관용이라는 관념이 정권의 아이덴티티에 핵심적 속성이 됨.
 - 그렇지만 실제로는 팽창이 처음에는 정복의 문제였으며, 이후 화해(pacification) 공작이 실시될 때에도 살인 등 잔인한 폭력이 행사됨.

7. 결론

- 1800년 무렵 아시아 영토의 방대한 부분이 짜르 지배하에 들어옴.
 - 러시아 지배자들은 몽골 지배의 경험, 비잔틴 제국의 유산과 이교도 로마교회에 대한 열광에 기반하여 하나의 제국적 의식을 발전시켜 나감. 러시아는 당시 유럽 문명과 근본적으로 같다고 여겼으며, 유럽 제국들의 특징을 띤 전망들을 늘려서 채택함.
 - 그러나 러시아가 동쪽으로 확장해 갈수록, 러시아는 서구와 동일화시키는 정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행동함.
-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근대 초기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를 특징짓는 일련의 수렴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동시에 진행된 통합(synchronized integration)’에는 영토적 합병 과정, 행정적 중앙집권화, 문화적 통합을 포함하며, 착취와 통제의 보다 효율적 체제가 출현함.
 - 수렴(convergence)은 러시아에서 차이, 문명과 규칙(이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적 초원지대의 전통에 대한 부인을 의미하기도 함)에 대한 유럽적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저하게 나타남.
 - 이러한 수렴으로 인해 러시아가 19세기 유럽 제국주의에 하나의 완전한 참가자(및 가해자)가 되는 기반이 형성됨.
 - 이러한 수렴의 결과, 국경(frontier)의 애매함이 줄어들고 특히 유목 사회의 자유를 약화시킴. 이는 19세기에 전지구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국들 세계의 합병’(the coalescence of the world of empires)으로 나가는 중대한 단계에 해당됨.

Chapter7: “In Search of “Empire” in Mainland Southeast Asia”

Bruce M. Lockhart

- 동남아시아 본토지역의 맥락에 적합한 ‘제국’ 모델의 개념화를 시도

1. Historiographical Overview

-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많은 역사적 정치체들이 ‘제국’으로 표현되었으나 최근 그러한 분류가 수정되는 추세임 - 중화중심적 bias에서 탈피하기 위함
- ‘제국’이라는 용어보다 식민지 이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격과 구조에 관한 연구가 우선

시 됨

- 인류학계의 기여:
 - Stanley Tambiah: “galactic polity”
 - Clifford Geertz: “theatre state”
- 역사학계의 발전:
 - O. W. Wolters: “mandala system” - 동심원적세력 구조
 - Hermann Kulke: 국가형성의 3단계 모델(chieftancy - early kingdom - imperial kingdom)
 - Victor Lieberman: “charter state” and “successor state”

2. 동남아시아 본토지역 '제국'의 새로운 개념화: 5대 특성

- 1) 만달라시스템적 성격
 - 2) 영토적 연속성
 - 3) 타 정치체의 흡수를 통한 영토 팽창
 - 4) 영토 팽창에 의한 민족적 다양성
 - 5) The aggressor rather than the victim, the attacker rather than the target
- ▶ 5대 주요제국: 파간(Pagan;미얀마 9-13세기), 버마(Burma; 미얀마 15-19세기), 시암(Siam; 태국), 베트남(Vietnam), 앙코르(Angkor; 캄보디아)

3. 왕권과 이데올로기

- 인도형(Indic)
 - 힌두-불교형(Hindu-Buddhist): 앙코르
 - 소승불교형(Theravada): 파간, 버마, 시암
- 중국형(Sinic):베트남

	인도형 (Indic)	중국형 (Sinic)
지도자 명칭	'왕'과 '황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다양한 명칭이 공존)	'왕'과 '황제'의 구분이 명확함 (그러나 지배층 밖에서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음)
지배 이데올로기	지도자는 불교의 dhamma/dharma를 따름	15세기 명 지배 이후 유교가 사회 전체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음 (천명, 장자계승)
정당성 & 왕조안정성	지도자 개인의 자질에 기반, 혈통은 부차적 중요성 (찬탈과 계승위기가 빈번)	지도자의 덕이 중요하지만 혈통이 더욱 중요 (약하거나 악한 지도자도 쉽게 정당성을 도전 받지 않음)
국가구조안정성	지도자 간 개인의 관계로 이루어진 위계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우거나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기 쉬움	과거제에 기반한 관료제 '천명'을 증명해야 하므로 왕족이 아닌 자가 쉽게 왕위에 도전할 수 없음
영토팽창 이데올로기	타 지도자가 자신의 영토에서 불교의 교리를 잘 실현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공격 가능	이웃 정치체들을 모두 조공·봉신국으로 취급, 황제의 덕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격의 명분이 됨

→왕조안정성과 국가구조안정성 면에서는 중국형이 더 안정적, 영토팽창면에서는 인도형과 중국형 모두 효과적이었음

Chapter8: “In Search of Empire in the Insular Malay World”

Sher Banu Khan

- 해양도서지역 동남아시아에서 ‘제국의 형성’은 이루어졌는가? 말레이지역의 ‘제국적 중심’들은 어떻게 권위를 형성하고 행사하였는가?
- 기존 견해: 동남아시아의 본토지역에서는 18세기까지 제국 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도서지역은 분열되어 있었다 → 저자: 도서지역말레이/무슬림 세계는 나름의 제국적 구조를 형성했다

1. 스리비자야(Srivijaya: 700-1400)

- 항구도시와 정치체들이 동심원적 만달라 구조를 형성 (도서지역동남아의 보편적 체제)
 - datu(지배자의 거처)와 그를 둘러싼 도심지역 < desa (datu로부터 인정받은 지역 지도자들의 영역) < bhumi (그 밖의 지역)
- 중심-주변 관계: 공식적 동맹은 oath-taking ritual을 통해 이루어짐 - 영토적 제국보다는 물라카 해협의 무역 거점들을 전략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추구
- 물라카 해협을 지배하여 중동과 중국을 잇는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이윤을 얻음
 - 일종의 조공관계를 형성한 해양세력 orang laut (“seapeople”)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 특산물 (진주, 거북이 등껍질 등) 확보, 해협 경비, 무역 규제 등을 도맡음
 - 지배자가 무역으로 얻은 부와 재분배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 경제적 영향력과 정치적 권위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보살Bodhisattva로 인정 받음)를 확립 -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아닌 지역의 지배계층을 개인적으로 후원하여 호혜적 관계를 형성
-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체제, 지배자개인의 능력과 카리스마에 의존
- 문화적 영향: 대승불교(Mahayana)학문의 중심지; 말레이어가 linguafranca가 됨; 스리비자야왕실의 언어와 예식을 타 정치체들에서도 모방
- 중국과의 조공 관계를 통해 상업적·외교적 입지를 다짐
 - 중심이 주변부에 대한 위계의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정치적·종교적 충성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국적 측면이 있음 - 고정화된 구조의 부재가 강점이 됨

2. 물라카(Melaka: 1400-1600)

- 15-16세기 해양도시국가들의 등장
 - 배경: 13세기 말몽골 침략, 태국어 사용집단의 남하, 기후변화, 동서해양무역의 팽창
 - 특히 아랍지역과 인도에서 무슬림 무역상들이 유입되며 이슬람 도시국가들이 등장
 - 별개의 도시국가들이지만 말레이어를 공용어로, 이슬람을 공통종교로 하는 하나의 체제를 형성
- 스리비자야의 쇠퇴와 물라카의 성립
 - 스리비자야의 특성을 계승: 물라카 해협에 근접, orang laut 집단의 조력, 말레이문화, 중국과의 관계, 유동적인 중심-주변 관계
- 주권은 지배자인 술탄 개인에 존재, 영토가 아닌 백성을 지배 - 국가 구조가 아닌 술탄 개인의 혈통과 생존이 중요 - 지배 구조는 취약하지만 백성들에게는 술탄의 주권과 복종이

강조됨 - 이슬람 교리로부터 왕권의 새로운 개념과 이론이 도입됨

- 무역 관계

- 1) 중국: 조공 + 무역 (후추, 해양삼림자원⇔ 도자기, 직물, 수공예품)

- 2) 인도양 지역

- 3) 말레이 제도: 후추, 향신료, 해양자원, 노예

- ▶ 말루쿠부터 베네치아까지를 잇는 세계적 상업 네트워크의 주요 항구가 됨

- 강압과 통제에 의한 지배를 했던 스리비자야와 달리 자유시장으로 무역상들을 끌어들임

- 말레이어, 말레이 문화, 이슬람교로 말레이 지역이 통합됨

- 스리비자야보다 광대한 영향권

- 농업과 영토기반의 제국과는 다른 형태이나 제국적 중심부가 봉신국들에 정치적·상업적 영향력을 행사함

3. '절대주의' 시대 (1500-1700)

- “상업의 시대”: 명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유럽과 아랍 지역에서 수요가 늘면서 동남아시아의 특산물(특히 육두구, 후추)의 교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함

- 환금작물 생산·수출, 도시의 발달, 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의간섭이 증가함에 따라 도서지역의 이슬람 왕국들은 중앙집권화를 시작하여 교역을 통제하고 부를 축적함 (유럽의국가형성 모델에 비견)

- 포르투갈에 의해 므라카 멸망 (1511) → 조호르왕조

4. 아체(Aceh)

- 포르투갈의 침입(1519-1524)에 대항하여 술탄 Ali Mughayat Shah가 말레이 지역의 무슬림 항구도시들을연합하여 성립 - 생산지들을 정치적으로 장악하여 포르투갈에게 생산품을 넘겨주지 않고 상권을 장악

- 상업엘리트 계층 orang kaya(“men of means”)의 세력이 성장하자 술탄 al-Mukammil이 그들을 학살하고 술탄이 상권을 독점

- 므라카의 포르투갈 세력과 10여 차례의 성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므라카 왕조가 중국과의 외교적·상업적 관계를 통해 지위를 높인 것과 같이) 아체는타 지역 무슬림 제국들과의 외교, 무역, 군사적 동맹을 맺음 - 오스만제국, 아비시니아 등에서 용병·무기 등 군사 원조
- 포르투갈에 대항한 범이슬람 연합이 될 뻔하였으나 합동 군사작전은 실현되지 않음

- 이슬람교를 통해 정부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통치법령을 제도화 (Sultan Iskandar Thani)
- 보편제왕(universalking)으로 자처

- 단순히동남아 지역의 왕을 넘어 “서에는 오스만, 동에는아체”

- 아체의 영토확장을 우려한 말레이 지역의 다른 정치체들로부터는 지지 받지 못함

- 실제로아체는 말레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영토확장을 시도하여 많은 지역을 복속시킴 (Sultan Iskandar Muda)

- 1560년대: 포르투갈의 강력한 대항세력으로 떠오름

- 지중해-홍해-동남아를 잇는 후추 무역의 중심

- 대내적권력, 봉신국에 대한 통제 강화

- 후추 판매, 인도산직물 구매에 대한 술탄의 독점권

- 문화: 므라카를 계승하는 말레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됨

- 말레이어, 이슬람교
- 타 지역 이슬람 제국들과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아체는 이전 시기 왕조들에 비해 유럽적 의미의 '제국'에 가까운 정통성, 의전, 정치·군사 구조를 갖추게 됨
- 여성 술탄의 등장 (1641-1699): 팽창적·중앙집권적 정책의 중단
 - orang kaya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 정책, 권력과 부를 공유
 - 네덜란드·영국 동인도회사들과 조약 및 무역협정을 체결
- 저자: 여성 술탄의 시기를 아체의 쇠퇴기로 보는 평가에 반대. 도서 말레이지역의 '절대주의'는 술탄 개인의 능력, 부, 군사적강압에 의존한 반면, 여성 술탄 시기의 문화적·종교적 충성에 기반한 분산적이고 유연한 통치는 지역의 전통적 정치적 특성에 더 적합하고 아체가 독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음.

5. 조호르(Johor)

- 므라카가 포르투갈에 넘어간 후 왕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조호르 왕조를 개창
- 아체의 팽창정책이 쇠퇴한 후 조호르가 아체의 경쟁자이자 므라카의 대안 계승자로 떠오름
- 지배 구조
 - 므라카와 마찬가지로 술탄의 생존과 혈통이 중요
 - daulat(신적인 능력)와 derhaka(반역이 죄악시 됨)의 개념
 - 왕족과 귀족의 경쟁구조: 술탄은 laksamana(해군지도자)와 bendahara(총리)의 견제를 받음
 - 이들이 1699년 술탄을 시해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지만 쉽게 권위를 얻지 못함
 - Orangkaya(Council of Nobles): 국제무역에 필수적 세력 + 지배계층 내 힘의 균형을 맞춤
 - Oranlaut: orang kaya에 대한 대항세력 - 군사력의 ¼을 장악
 - 조호르 왕조 술탄에게 충성했으나 1699년 사건 이후 두 세력 간에 흔들리게 되면서 영향력이 약화됨
- 므라카 왕조의 연장선
 - 1) 구 므라카의 지배 지역들이 조호르 술탄에게 대를 이어 충성함;
 - 2) 해변지역과 orang laut와의 직접적 지배·충성 관계가 유지됨
 - 말레이전체에서 스리비자야와 므라카의 계승자로서 조호르 술탄의 권위가 인정, 그러나 아체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아체는 성전과 군사정복으로 성장한 반면, (아체의 여성 술탄들과) 조호르는 "소프트파워"를 통한 충성 네트워크를 형성함
 - 주변 지역에서 패권을 형성하기에는 군사적 중앙집권화보다 어느 정도의 권력 분산이 더 안정적이었음

6. 결론

- 기존 견해: 본토지역과 달리 도서지역이 정치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이유:
 - 1) 지리적 환경;
 - 2) 개인의 리더십과 종교적 권위에 기반한 지배자 개념;
 - 3) 유럽 세력의 간섭
- 저자: 좁은 의미의 '제국' 개념에서 벗어나면 도서지역에도 나름의 제국적 구조가 존재했음. 이 모델에서는 호혜적 patron-client 관계, 지역 지배자의 권위 존중, 정치적·상업적

권력 분산, 유연한 지배구조와 소프트파워가 중앙집권 보다 안정적 전략이었음.

Chapter9: “Iberian Maritime Asia, 1497-1700s: The Portuguese and Spanish Empires in Asia”

Anthony Rendell Disney

Introduction

- 포르투갈: 초기 근대(16세기) 아시아에 첫 유럽제국 건설
- 카스티야(스페인)가 약 반 세기 후 두번째 유럽제국 건설
- ▶ 이후 약 100년간 두 나라가 유럽-아시아교통을 독점
- 17c 초영국과 화란의 동인도 회사 창설로 독점 파괴

The Hybrid Character of the Iberian Empires: Seaborne, Maritime, and Territorial

- 이베리아 아시아 제국들의 혼종성
- ▶ Seaborne: 바다가 주 통신-운송수단
- ▶ Maritime: 해안항구 중심, 드문 내륙진출
- ▶ Territorial: 18세기 이후 점차 내륙진출시도, 식민통치 강화

Transportation Networks

- 아시아에서 이베리아 제국들의 창설, 유지가 가능했던 이유
- ▶ 미개통 대륙간 해양루트의 발견 및 배타적 이용 덕분
- (1) 포르투갈: Carreira da India (대서양 & 인도양)
- (2) 스페인: Carrera de las Indias(대서양) + Carrera de las Filipinas(태평양)

Networks of Trade

- 경제적 이윤 극대화에 매진
- ▶ 아시아의 기성 무역경로 차용 + 영토자체 획득에 저관심
- 포르투갈의 인도 식민지는 처음부터 ‘공간’ < ‘네트워크’ 중심개발
- ▶ 상품유통 > 생산, 해양지배 > 토지획득, 지역관계형성 > 정치적 지배
- ▶ “제국”이란호칭자체가 의문시: 광역 상업네트워크적 성격

Catholic Mission Networks

- 제국 네트워크는 가톨릭 선교 네트워크와도 연계
- 4개선교회¹⁾에 지역별 복음전파의무 부여 -> 4개의 독자적 net cluster 형성
- 정치/무역 네트에 비해 훨씬 더 내륙지역까지 침투
- 이베리아와 불편한 관계인 예수회의 자립 시도: 러-청 네르친스크 조약 중재

1) 도미티크, 아우구스투스, 프란체스코, 예수회

Formal Imperium and Territorial Empire

(1) 포르투갈은 아시아 진출 시 제국건설의 사전계획 전무

- ▶ 제국이란 단어는 17세기 중반 이후에야 등장
- ▶ 다만 유럽의 무역 라이벌들 견제하기 위해 희망봉 동쪽 해안에 거대영역 지배권 주창
- ▶ 교황칙령 & 토르데시야스/사라고사조약 => 非기독교세계를 두 이베리아 제국이 분할
- 포르투갈의 실제 아시아 영토는 작은 해안거주지, 항구에 국한
- ▶ 봉건제적 틀에서 지역 군주들과 우호/형제관계 수립, 충성서약요구 및 책봉식
- ▶ 역설적으로 화란, 영국에 밀리기 시작한 17세기중반 이후 영토지배적 제국성 증대: 당대 동인도 회사들의 궤적과 동일

(2) 스페인의 제국지위 주장은 보다 큰 실체 존재

- 카를로스1세의 신성로마제국황제 선출(1519)이후, 스페인 왕들은 보편주의적 사명의식 보유

The Iberian Empires and the Great Powers of Asia

- ▶ 포르투갈 & 거대 아시아 영토제국의 관계
- 해안지역 소국들과의 실용주의적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
- 특히 전통적 적대세력인 무슬림 제국들과의 관계는 문제적
- (1) 오스만 해군은 16세기 내내 인도양에서 위협적
- (2)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와는 反오스만 공동전선을 모색했으나 실패
- (3) 무굴제국의 성장과 남하 경계
- (4) 가장 침투가 어려웠던 상대는 明
- ▶ 그럼에도 마카오에 무역항 개설 성과 ⇔중양조정과의 관계수립 시도는 실패

The Spanish Territorial Empire in the Philippines

- 카스티야 왕조의 제국론
- ▶ 신이 비기독교 토착민을 가톨릭으로 개종시킬 의무 부여: 토착민의 영혼 구제가 제국획득의 주된 정당성
- ▶ 아메리카 정복에서 무력사용이 과도했다는 반성
- 포르투갈과 달리 스페인은 처음부터 “영토적”인 제국관념 보유
- ▶ 필리핀 점령 & 구교전파 의도 명확

Informal Conquests and Freelance Conquistadores

- 16세기말-17세기초 “비공식” 제국주의부상
- ▶ 개인 모험가, 용병들의 사적 이익추구
- ▶ 이베리아 국가들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실행X

Imperial Lines of Defense

- 인도양 서부에 포르투갈은 방대한 요새 시스템 창설
- 아시아로 간 대부분의 포르투갈인은 미혼남성군인
- “인도국”은동시대 아메리카보다 훨씬 군사화된 체제

Social Interaction and Cultural Exchange

- 아시아에서 포르투갈의 존재 = 사회문화 교류의 장을 형성
- 여성을 동반하지 않은 군인들만 배치: 지역에 혼혈가족 생성
- “Catholic Orientalism”: 16~19세기 아시아 체류 이베리아인들에 의해 축적된 지식체계
 - ▶ 종교전도과정에서 생산: 예수회 중심 지역언어와 전통의 학습
- 아시아인들도 서구지식과 기술에 관심 ex) 북경에서 간접학습한 조선사절단
- 당대 유럽 부자들 사이에 중국 도자기 수집 인기
- 서구언어와 아시아 언어의 상호침투현상

The Iberians and the Other European Empires in Asia

- 1600년대 이래 화란과 영국의 동인도회사 부상
- 이에 맞서 이베리아 국가들의 협력 필요 증대 ⇨ 포르투갈은 스페인에 의한 흡수 우려: 도리어 스페인과 결별하고 영국과 조약을 맺는 역사적 전환 발생(1635)

Twilight of Empire

- 포르투갈 vs 스페인 결별이 두 제국에 심대한 후과
 - ▶ 후발 유럽제국들에 큰 기회: 17세기 중반 아시아에서 유럽제국간 관계에 근본적 재정렬 발생
- 17세기말에 이르러 이베리아의 아시아 해양지배 종식
 - ▶ 두 국가는 이등국으로 전략: 화란이 동남아 패권 & 영불은 인도에서 경쟁
- 17-8세기포르투갈 제국은 영국과의 동맹으로 간신히 유지되나 점차 침식

Conclusion

- 이베리아 제국의 성립 = 아시아 제국사에서 바다의 의미 변환
 - ▶ 이전까지 아시아에서 제국은 영토기반: 대양은 이론상 중립적, 제국 팽창을 막는 역할
 - ▶ 이베리아 제국에서는 도리어 대양=제국팽창의 수단
- 이베리아 제국이 아시아 제국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
 - ▶ 정치,문화적 영향적음: 토착종교, 정치문화등의 변경시도 실패
 - ▶ 아시아 제국들은 이베리아 제국들의 내부정책, 제도, 해양네트워크시스템 모방X
- 단,아시아를 세계에 연결시킨 효과발생
 - ▶ 무역 증대로 아시아 제국들의 부 증대, 언어교환
 - ▶ 아시아 지배층에 유용한 신기술, 정보제공: 유럽식무기, 전술, 지도, 천문학
- 구교 전도 시도는 아시아 지배자들이 더욱 유럽 규범에 저항하도록 유도
 - ▶ 국가기구들의 강화, 지역정치전통 부각
- 아시아 공간을 유럽외교의 결정에 종속시키려는 시도 실패
 - ▶ 아시아 거대제국과의 관계에서 비유럽적 의례, 의식, 기대를따름
 - ▶ 유럽제국이 아시아 제국의 동등자로 인정받기엔 아직 더 시간 필요

Chapter10: “Chartered Companies and Empire”

Peter Borschberg

국가로부터 특허장을 얻어 일정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독점한 근대 초 유럽의 기업. 대부분 합자회사의 형태를 취함. 1600년 설립된 영국 동인도회사(EIC)와 1602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VOC)가 대표적. 이외에도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프로이센(동프리스란트의 Emden에 두 개의 특허회사를 설립), 오스트리아(스페인왕위계승전쟁에서 지금의 벨기에를 획득한 후 이곳의 Ostend에 특허회사를 설립) 등도 특허회사를 설립. 1600~1800년이 특허기업의 전성기. 특히 1680~1750년이 최전성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특허회사들은 18세기말과 19세기 초에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짐. 영국 동인도회사만 예외. 1858년 인도의 공식합병 이전까지 존속.

순수 민간기업이 아닌 준(準)공기업. 정부와 왕실 역시 투자자로 참여. 정부로부터 여러 특권을 부여받음. 경제적 이익추구 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할도 담당.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경우 '스타텐 헤네랄'이 주요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 프랑스 동인도회사의 경우 왕실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스페인과의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지원. 무역기업인 동시에 전쟁의 수단. 또한 특허회사는 무역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 상선은 화포 등으로 무장, 무역거점에는 요새를 건설.

본격적인 의미에서 제국주의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19세기 유럽국가의 제국 건설(High Imperialism)의 기반을 마련. 특허회사들이 구축한 인적, 물적 인프라, 네트워크, 행정조직, 노하우 등. 양 동인도회사 성공은 자원확보와 경영기법의 혁신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엘리트들과의 협력에 기인. 영국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아시아 지역의 상업네트워크에 참여, 아시아의 사업관행을 채택, 수용, 지역 정치 게임에서 주요 행위자가 됨. 지역의 경제, 정치에의 'adaptation'과 'accommodation'이 성공의 핵심.

특허회사는 스페인, 포르투갈제국과는 달리 종교 문제에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 개종 시도는 스페인, 포르투갈제국의 실패요인 중 하나.

From companies to company states: VOC는 지금의 자카르타를 근거지로, EIC는 벵골지방을 근거지로 삼음. 이 지역을 '통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통치를 위한 인력과 재원이 소요됨. 이로 인해 이윤의 감소가 두드러짐. EIC는 플래시 전투에서 프랑스의 견제를 물리친 후 벵골 지방의 통치자의 지위를 획득. 무굴제국의 일부로써 농산물에 대한 조세징수를 주요 업무로 삼음. 관료화되면서 위험회피 성향이 커짐.